

인·기·만·점

외국인 관광객 전용 교통관광카드

머스트 바이 아이템 ‘코리아투어카드’

공항 편의점서 구입 가능 만능교통카드
관광·쇼핑·공연 25개 기업에서 할인혜택

1월 출시 후 2개월 만에 1만장 판매 돌파
잔액 환불…서울메트로 자판기로 판매확대

“홍콩 옥토퍼스, 일본 스이카 부럽지 않아요.”

홍콩이나 일본을 자유여행으로 자주 찾는 사람들이라면 옥토퍼스 카드나 스이카(suica)라는 이름이 친숙할 것이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범용 교통카드로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만능카드’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공항에 도착하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머스트 바이’ 아이템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옥토퍼스 카드, 스이카 부럽지 않은 여행자를 위한 만능교통카드가 있

다. 한국방문위원회(위원장 박삼구)가 1월 출시한 코리아투어카드가 출시 2개월 만에 1만장 판매를 넘어서며 초반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스스로를 열정적인 한류 팬이라고 밝힌 후타마타 미사키(여, 23)씨는 코리아투어카드의 편리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공연이 있을 때마다 한국을 찾아 쇼핑과 관광을 즐기던 그녀는 이번 방한기간 동안 코리아투어카드를 이용해 여행을 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매번 지하철을 타려고 임시 교통카드를 구매하는게 귀찮았는데 코리아투어카드로 이용해보니 너무 편하고 시간도 절약된다. 특히 편의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남은 돈을 환불받을 수 있어 좋았다.”

●1월 출시 후 인기몰이, 4월부터 서울메트로·공항철도 자판기서도 판매

코리아투어카드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인 티머니를 기반으로 개발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교통관광카드이다. 기본 기능인 전국교통카드에 더해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관광, 쇼핑, 한류, 공연 등 25개의 기업이 제공하는 할인, 관광 해

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전용 교통관광카드다.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한번 구매하면 2018년까지 각 기업 및 브랜드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쓰고 남은 잔액은 출국 전 편의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한국여행을 보다 편하게,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코리아만 매직 카드’인 셈이다.

한국방문위원회는 코리아투어카드에 대한 인기와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 라인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이미 4월부터 서울메트로(1~4호선)와 공항철도 자판기에서도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수도권에 머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코리아투어카드의 구매 및 이용이 더 쉬워졌다.

또한 앞으로 국내의 여행사와 온라인에서도



방한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 전용 코리아투어카드의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 때문에 즐거운 여행을 했다고 밝힌 일본인 한류 팬 후타마타 미사키(오른쪽)씨와 그녀의 친구. 사진제공 | 한국방문위원회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처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코리아투어카드 추천 관광루트 개발 및 지역별 구매빈도를 분석해 개별관광객 대상 실질적인 혜택과 기능을 더할 예정이다.

한국방문위원회 한경아 사무국장은 “개별관

객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지방 관광지 혜택까지 넓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코리아투어카드 하나로 편리하게 방문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왼쪽 사진부터) 부산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투어에서 만난 골목길의 벽화, 아이들의 천진한 표정이 인상적인 벽화는 1951년 사진 ‘감만동 피란민촌 아이들’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부산 아경명소 ‘역사의 디오라마’에서 바라본 부산향대교와 시내 야경. 피란수도 시절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로 지금은 전쟁 당시 생활상을 소개하는 기념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 | 김재범 기자



‘감만동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1951년 그때 그 시절로

근대사 발자취 따라간 부산 스토리투어
비석문화마을 곳곳엔 피란민 삶의 흔적
초량·영주동 전망대 운치있는 야경 명소



여행

부산은 여행한다고 하면 흔히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 등의 바닷가 명소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여행지 부산에는 시원스런 바다풍경을 자랑하는 이곳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을 반대로 돌려 내륙 쪽을 보면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근현대사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적 명소들이 있다. 부산은 최근 한국전쟁 당

시 수도의 역할을 맡았던 피란수도의 문화·역사적 테마를 관광콘텐츠로 개발한 ‘원도심 스토리투어’로 주목받고 있다.

●피란민의 애달픈 삶의 현장, 비석문화마을

부산 원도심 스토리투어의 키워드는 산복도로다. 평지가 좁은 부산의 특성상 개항기와 한국전쟁 당시 많은 이방인은 산자락 비탈진 곳에 터전을 잡았다. 그 마을들을 연결한 산복도로는 부산의 역사를 상징하는 지표이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도 산복도로변에 있다. 토성역에서 시내 버스를 타고 감천문화마을을 방향으로 가다 보면 천마산 고개 못미처 만날 수 있다.

부산 곳곳에 피란민의 애달픈 삶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비석문화마을은 유래가 유독 각별하다. 이름 그대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공동묘지였던 지역을 개조해 피란민이 터전을 잡은 곳이다. 무덤의 비석과 초석 등을 기초로 해 그 위에 천막이나 판잣집을 지었고, 이후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집을 올려 살았다. 마을 초입에 무덤 석물 위에 집을 지었음을 생생히 보여주는 건물이 이정표처럼 자리잡고 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난 동네를 거닐다 보면 집의 정화조 수리 중 우연히 발견한 일본식 지장보살을 모신 모습부터 촉대 대신 일본인 묘비를 썼던 흔적까지 예상치 못했던 역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골목길과 닿은 집 벽면에는 다양한 벽화들도 그려져 있다. 그중 1951년 사진 ‘감만동 피

란민촌 아이들’을 그대로 그린 벽화는 아이들의 천진한 표정이 보는 이의 발길을 오래 붙잡는다.

●초량·영주동의 부산 아경명소들

부산역과 가까운 초량동, 영주동 일대에는 시내와 항만을 한번에 내려다보는 야경 명소들이 있다. 우선 시인 청마 유치환 우체통 전망대가 있다. 초량동 산복도로의 전망대로 이곳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다.

이곳서 차로 5분 정도 이동하면 만나는 천환경 스카이웨이 전망대는 야경을 편히 보도록 나무데크로 계단과 산책로를 만들었다. 봄철엔 은은한 벚꽃조명과 머리 위 벚꽃이 어우러지고, 눈앞으로 항구의 야경이 펼쳐진다.

영주동 ‘역사의 디오라마’ 전망대는 야경 감상에 약간의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전시실에서 볼 때는 자리를 잡고 움직이면 안 된다. 조명이 동작센서만 있어 한번 불이 들어오

면 꽤 오랫동안 켜져 야경 감상을 방해한다. 2층 야외전망대에서는 항만 전경 못지않게 산복도로 동네의 노란 나트륨 가로등과 골목길이 운치 있게 어우러진 야경이 일품이다.

●1023일 대한민국 수도의 발자취, 임시수도기념관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1950년 8월18일부터 10월26일, 1951년 1월4일부터 1953년 8월14일까지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수도였다. 연산동 임시수도기념관은 이승만 대통령 관저와 기념관으로 구성해 피란시절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2층으로 된 대통령 관저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실, 거실, 침실, 욕실, 식당 등을 당시 생활집기 등을 통해 재현해 전시하고 있다. 뒷편의 전시관은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관사로 부산의 근대사와 피란 당시의 삶을 기록한 각종 사진, 유물 등이 있다.

부산 | 김재범 기자

오·감·만·족

맛·향·목넘김·컬러·그립감

디자이오코리아 ‘원저 더블유 시그니처’

17년 위스키 원액 최적 밸런스로 블렌딩
세계적인 마스터 블렌더 3명 협업 제품

음미하는 맛·향·목넘김 부드러움 극대화
고든 스미스 디자인으로 컬러·촉감 극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 모씨(38)는 최근 회사자리에서 기분 좋은 청찬을 들었다. “최근 팀 분위기는 술을 적게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지만, 팀장의 승진을 기념하기 위해 축하하는 자리에서 선택한 제품이 여성 동료는 물론이고 팀장에게도 색깔과 모양도 좋고 맛도 굉장히 부드럽다는 반응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김씨가 선택한 주류는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일명 ‘갈색병’이라고 불리는 원저 더블유 시그니처다.

●35도의 부드러움, 마시기 편해 20~30대 여성들도 즐겨

국내 위스키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주류기업 디자이오코리아가 새롭게 선보인 제품 원저 더블유 시그니처는 스코틀랜드에서 17년간 숙성된 위스키 원액을 최적의 밸런스로 블렌딩해 35도의 부드러운 맛과 향을 완성한 스피릿 드링크 제품이다.

최근 더블유 시그니처와 같이 도수를 낮추고 맥주나 와인 못지않게 부드러운 목 넘김을 가진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마시기 편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소비자와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40대 이상의 중·장년 남성들이 주를 이루던 소비층이 최근에는 20~30대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 중 색상이나 디자인부터 눈에 띄는 제품 중 하나인 더블유 시그니처는 이례적으로 3명의 세계적인 마스터 블렌더가 협업해서 만든 제품으로, 맛과 향 그리고 목 넘김까지 술을 음미하는 3단계에 걸친 최상의 부드러움이 특징으로 여기에 고급스러운 컬러와 한 손에 부

드럽게 감기듯 잡히는 그립감까지 5감을 만족시키며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3명의 마스터 블렌더가 만든 최상의 부드러움

부드러운 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디자이오는 세계적인 마스터 블렌더 세 명에게 ‘최상의 부드러움’을 만족시키는 블렌딩을 특별 주문했다. 이 세 명의 노하우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맛과 향, 목넘김까지 술을 음미하는 3가지 단계에서 모두 부드러움이 극대화됐다. 부드러운 향의 첫 느낌과 입 안에 머금고 목으로 넘기는 동안 최상의 부드러움과 동시에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여운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더해졌다.

싱글몰트 위스키마스터의 저자이자 한국 위스키 협회 유성운 사무국장은 “한마디로 밸런스가 최고다. 과일향, 시트러스, 감귤향, 오렌지향, 초콜릿향, 물티향도 있고 균형감이 칼날 위에 놓인 듯 잘 만들어졌다. 소위 말하는 목 넘김이 굉장히 좋고 한국 소비자 입맛

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평가했다.

●고든 스미스가 디자인한 ‘갈색병’

세계적인 디자이너 고든 스미스의 병 디자인 또한 눈길을 끈다. 소비자들 사이에는 ‘갈색병’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세련된 버전디 컬러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여기에 앞면의 부드러움 곡선과 옆면이 얇아진 병 디자인 또한 손안에 감기는 부드러움 촉감으로 또 한번 부드러움을 선사한다.

디자이오코리아 관계자는 “스피릿 드링크 ‘원저 더블유 시그니처’는 단순히 도수를 낮추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선사하고 있다”며 “스코틀랜드에서 17년간 숙성된 스카치 위스키에 풍미와 향을 더해 최적의 밸런스로 3단계의 부드러움 맛과 향을 완성했고, 시각에 촉각까지 5감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원저 더블유 시그니처는 스코틀랜드에서 17년간 숙성된 위스키 원액을 최적의 밸런스로 블렌딩한 제품이다. 맛과 향, 목 넘김까지 술을 음미하는 3단계에 걸친 최상의 부드러움을 선사한다.

사진제공 | 디자이오코리아

뉴즈디자인 | 신하늬 기자